

[보도자료] “규제특례로 물류혁신·일자리 창출·친환경 일석삼조 효과” 쿠팡, 경북 지역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신사업’ 참여

2024. 9. 5.



쿠팡은 5일 경북 김천시와 ‘울곡 생활물류복합센터’(이하 울곡 센터) 준공식을 열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경상북도·김천시·물류스타트업과 ‘주차장 기반 생활물류’ 사업화 공동 추진 배송 거리 감소, 지방 일자리 창출 기대
- 5일, 울곡 생활물류복합센터 준공식 개최 및 MOU 체결

2024. 09. 05. 서울 - 쿠팡이 경상북도 및 김천시가 주관하는 지역 물류 혁신 사업에 참여한다. 사업성이 성공적으로 검증되면 지역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배송거리 및 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친환경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쿠팡은 5일 경북 김천시와 ‘울곡 생활물류복합센터’(이하 울곡 센터) 준공식을 열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천시 소재 울곡 센터는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되는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 사업’의 메카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준공식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충섭 김천시장, 송연석 국회의원,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곽형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상무를 비롯해 관련 기업 및 기관, 지역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규 사업 발전과 신기술 검증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다.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도심 주차장의 일부를 생활물류시설로 이용하는 사업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심 내 주차장 수요에 맞춰 주차 공간은 유지하면서도 도심내 생활물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규제특례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울곡 센터는 기존 주차면수를 유지 또는 확대하면서 주차장 복충화를 통한 생활물류시설 확충 사업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앞서 쿠팡이 사업 효과를 시뮬레이션(가상 분석)한 결과,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통해 배송거리 및 시간 단축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심내 배송 거점이 도입되면 도심 외곽에서 시작되는 기존 배송 방식에 비해 배송

거리는 약 80% 이상, 배송 시간은 약 2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시 안에서 운영되는 배송차량의 운행거리가 연간 43만8000km(하루 20대 기준) 단축되는 셈이다. 쿠팡은 사업 실증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친환경 효과도 검증할 예정이다.



5일 오전 (왼쪽부터) 박순호 피엘지 대표,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충섭 김천시장, 광형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상무가 업무 협약식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쿠팡은 경상북도, 김천시, 물류스타트업 PLZ(피엘지)와 업무 협약을 통해 실증 사업의 물동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공영주차장 건축물 및 부지의 활용과 각종 행정 지원 등을 맡는다.

쿠팡 관계자는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사회 및 중소기업과의 협업으로 물류혁신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라며 “우수한 물류 입지의 울곡 센터에서 사업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국 각지로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오는 10월 김천 물류센터 착공을 비롯해 내년 초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물류 인프라 신규 운영 및 추가 건립을 진행해 인구감소 지방도시에서 1만여 명 규모의 직접 고용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